



폴란드 경제의 회고와 전망

1. 개 관

2007년 하반기 미국 발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부실에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영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 경제권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권의 투자자산 회수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2008년 4분기 이후 동유럽 경제권의 금융·외환시장은 극도의 불안 장세를 나타내었다. 동유럽 경제권 중에는 헝가리를 비롯하여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지로 경제위기가 확산되어 이들 국가들은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서유럽계 기업의 동유럽 경제권에 대한 과잉투자가 동유럽 경제권의 경제위기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에도 통화가치 및 주가 급락, 실물경기 침체 등이 나타나면서 2009년 거시경제상황은 전년에 비해 악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2009년 11월에는 두바이, 그리스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경제위기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동유럽의 최대 경제권인 폴란드는 개도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5~6위권 해외직접 투자 대상국으로서 신흥유럽(Emerging Europe)의 중심 국가로 평가된다. 폴란드의 풍부한 숙련 노동력,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EU 가입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등이 경제성장의 요인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와는 1989년 11월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가 증대되고 있으며, 2009년 7월의 한-폴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 산업을 주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 2009년 경제 회고

가. 국내경제



2008년 하반기 이후 폴란드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주변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타격을 비교적 덜 받은 국가로 평가된다.¹⁵⁾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고 수출 의존도가 40%¹⁶⁾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주요 수출상대국인 EU 회원국의 수입 수요 침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EU 회원국 중 폴란드가 유일하게 2009년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IMF는 폴란드의 경제 성장률이 2008년 4.9%에서 2009년에는 1.1%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폴란드의 경우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 위기의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무역 의존도, 전통적으로 낮은 이자율, 민간부문의 채무상환부담 경감, 소득세 감면 및 EU 기금수혜를 통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추진 등에 기인한다. 2009년 폴란드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였던 또 다른 요인은 확대통화정책 시행, 통화가치 약세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상승, 비교적 건전한 금융부문, 경기부양 조치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폴란드경제부에 따르면, 2009년 산업생산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음료 및 전자광학제품의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금속 및 자동차의 산업생산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문도 금융부문의 유동성 악화, 공급과잉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 단기간 내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¹⁷⁾

폴란드 정부는 2009년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를 182억 즈워티(55억 달러 상당)로 설정하며 전년(246억 즈워티)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감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에는 기업경기가 크게 둔화되었고, 특히 개인소득세 인하조치와 생산 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폴란드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를 272억 즈워티(87억 달러 상당)로 상향조정하였다. 결국 경기침체 지속, 사회보장기금(ZUS) 지출 확대 등으로 2009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6.1%로 전년의 -3.1%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9년에는 내수 위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하였다. 동유럽 경제위기 심화 당시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입 식료품 및 연료가격이 상승하여 물가가 불안하였으나, 통화가치 회복,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15) IMF 추정에 의하면, 2009년 동유럽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라트비아 -12.0%, 헝가리 -3.3%, 체코 -3.5%, 슬로바키아 -2.1%, 루마니아 -4.7%, 불가리아 -2.0% 및 폴란드 1.1%임.

16)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로 주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임.

17) 폴란드통계청(GUS)에 따르면, 2009년 1~6월 건축허가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21.4% 감소함.



폴란드 통화(즈워티) 가치도 2008년 하반기 이후 급락하면서 2009년 3월 미달러화 대비 3.7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 들어 즈워티화 가치가 점차 회복되면서 2009년 12월에는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2.8 수준을 형성하였다.

〈표 V-1〉 폴란드의 주요 국내경제 지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제성장률	6.2	6.8	4.9	1.1	1.9
산업생산증가율	11.2	9.3	2.7	-5.0	4.0
국내총투자/GDP	21.1	24.4	23.9	21.2	21.9
실업률	13.8	9.6	7.1	8.9	10.3
소비자물가상승률	1.0	2.5	4.2	3.5	2.9
재정수지 / GDP	-3.5	-1.3	-3.1	-6.1	-6.9

자료: IMF, EU 및 폴란드경제부.

나. 대외거래

폴란드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구조이며, 2000년대 들어 경상수지 적자는 1990년대에 비해 급속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2009년에는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상품수입의 급격한 감소, 경상이전수지 및 소득수지의 개선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269억 달러)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 결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08년의 -5.1%에서 2009년에는 -1.8%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상반기에는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차입이 어려워지는 등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외환관리(환율변동성 확대) 및 경제운용이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였다. 즉, 폴란드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 12월 말 593억 달러로 수입의 3.7개월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9년 4월을 즈음하여 폴란드의 외환·금융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폴란드 정부의 17.5억 유로에 달하는 유로채권¹⁸⁾ 발행 성공은 폴란드 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18) 15억 유로 채권을 발행한 체코에 이어 중부유럽 국가 두 번째로 유로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14년 만기, 기준금리 2.306% 및 가산금리 363bp 수준(수익률 5.94%)으로 발행됨.



특히, IMF는 2009년 5월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를 통해 폴란드에 대해 205억 달러(155억 유로 상당)의 자금지원을 승인함으로써 폴란드의 외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⁹⁾ 폴란드는 멕시코(47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FCL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은 국가로서, FCL은 IMF가 경제 펀더멘털이

〈표 V-2〉 폴란드의 주요 대외거래 지표 추이

단위: %, 억 달러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상 품 수 지 / G D P	-2.1	-4.0	-4.9	-1.2	-2.5
상 품 수 출	1,175	1,453	1,784	1,400	1,493
상 품 수 입	1,245	1,624	2,044	1,489	1,631
경 상 수 지	-92	-203	-269	-77	-132
경 상 수 지 / G D P	-2.7	-4.8	-5.1	-1.8	-3.0
교역조건(1995=100)	97.2	98.9	97.4	101.8	100.2
외환보유액(억 달러)	464	630	593	730	752
외환보유액/수입 ^{주)}	4.7	4.9	3.7	5.9	5.5
총 외 채 잔 액	1,696	2,341	2,435	2,582	2,654
총외채잔액/GDP	49.6	55.0	46.1	60.0	60.5
환 율(즈워티/미달러)	3.10	2.77	2.41	3.13	2.90

주: 외환보유액을 월평균 수입 개월 수로 환산
 자료: IMF 및 폴란드경제부.

양호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2009년 3월 도입한 제도이다.

2004년 EU 가입으로 폴란드에 대한 FDI 규모는 증가추세를 나타내다가 2007~08년에는 다소 등락을 보였으나 전년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2006~08년 폴란드에 대한 FDI 유입실적은 2006년 192억 달러(전년 대비 85.3% 증가), 2007년 176억 달러

19) IMF가 이번 폴란드에 대해 지원한 FCL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에 직면한 헝가리,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등에 지원한 대기성차관과는 다른 성격의 자금임(2010년 말 종료).



(전년 대비 -8.4%), 2008년 165억 달러(전년 대비 -6.0%)로 나타났다.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으로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FDI 유입이 지속되었다. 폴란드에 대한 주요 직접투자 국가를 살펴보면, 독일이 최대 투자국을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는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스페인, 몰타 등 서유럽 국가들의 투자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폴란드투자청(PAIIIZ)에 따르면, 2009년 FDI 유입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인감소 및 투자계획 축소 등으로 100억 달러에는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서유럽 경제권의 경기침체로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 유럽에 대한 투자유인이 크게 줄어든 데다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산업설비에 대한 투자 축소, 기업경영실적 악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 국제신인도 및 투자여건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최대의 경제 및 인구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주요 신용도 평가기관은 폴란드에 대해 모두 상위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S&P는 2008년 2월 신정부 출범 이후 재정 및 경제 구조개혁여건 개선, 투자 및 고용 증대에 따른 경제성장 지속 전망 등을 들어 등급전망(Outlook)을 A-/Stable(유지)에서 A-/Positive(긍정적)로 상향조정하였으나, 10월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 전망에 따라 등급전망을 A-/Stable(유지)로 다시 하향조정하였다. 글로벌 유동성위기에 따른 주변 신흥유럽국에 대한 IMF 차관 지원, 외환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폴란드 경제도 영향을 받았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국가신용등급은 조정되지 않았다. 2009년 들어서는 상반기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뿐만 아니라 등급 전망에 대한 평가도 조정되지 않았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폴란드 정부채권에 대해 S&P 및 Fitch는 A-(Stable), Moody's는 A2(Stable) 수준에서 더 이상 추가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OECD도 폴란드 국가위험도를 2등급으로 부여하면서 양호한 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V-3〉 폴란드 국가신용등급 평가추이 비교

	2007	2008	2009
한국수출입은행	B1(Stable)	B1(Stable)	B1(Stable)
OECD	2/7	2/7	2/7
S&P	A-(Stable)	A-(Positive)	A-(Stable)
Moody's	A2(Stable)	A2(Stable)	A2(Stable)
Fitch	A-(Stable)	A-(Stable)	A-(Stable)

자료: 각 기관별 홈페이지.

폴란드의 투자여건은 전반적으로 2008년에 비해 2009년 상반기에는 크게 악화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들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여건이 크게 변동된 분야는 외환·금융 부문인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 부문은 2008년 하반기 이후 매우 악화되었으나 2009년 하반기 들어 외환시장 불안이 진정되면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유동성위기 이전인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미달러화 대비 즈위티화²⁰⁾ 환율은 75% 급상승함에 따라 외환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9년 4월부터 즈위티화의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9월 말 2.8즈위티 수준으로 즈위티화 가치가 상승하였으며, 종합주가지수(WIG20)도 연중저점 대비 30% 이상 반등하는 등 종합주가지수 및 통화가치가 확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폴란드의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EU 가입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3월 기준으로 외국계은행이 폴란드 금융부문 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폴란드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로 금융부문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적 개선이 유발되었지만,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과도한 외국인 경영체제가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특히, 국제저금리 기조하의 투자열기, 경기과열 등으로 2008년 말 기준으로 폴란드 금융부문의 대출총액이 예금총액을 2년 연속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²¹⁾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20) 외국인투자의 외환법규는 OECD의 자본자유화 규정에 맞추어 정비되었고 2002년 4월부터는 변동환율제가 시행되었음.

21) 폴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대출총액은 6,408억 즈위티(전년 대비 37% 증가), 예금총액은 5,696억 즈위티(전년 대비 21% 증가)를 기록함.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및 규제 강화가 시행되면서 여신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상장 축소,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을 통한 대출확대 규제 등으로 금융시장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1998년 이후 폴란드 중앙은행은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기준금리는 2.5% 포인트 인하되어 사상 최저치인 3.5%를 기록하였다. 최근의 금리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단행되어 당분간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 2010년 경제 전망

2010년 폴란드 경제는 주요 수출상대국인 유로존 및 미국의 경기가 2009년에 비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9년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폴란드 경제성장률에 대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75%, IMF는 1.9%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폴란드 경제성장의 요인은 정부의 경기부양조치 지속 시행, 글로벌 무역의 점진적인 회복, 국제금융시장 안정으로 인한 확대통화정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소득세 감면조치는 민간 소비 증가로 이어지며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경제회복 속도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노동시장 여건이 별로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고용 감소로 인한 실업률 상승,²²⁾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 및 소비 위축 등으로 내수기반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이 재연된다면, 폴란드의 경제회복은 크게 제한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차입 사정이 곤란해질 경우 폴란드 내 금융시스템을 통한 대출 여력이 예상보다 제한을 받게 되고 결국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정부가 민영화사업 추진으로 공공부문 투자는 어느 정도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지만, 민간부문을 주축으로 한 외국인투자는 글로벌 유동성문제로 인하여 투자 심리가 아직 크게 호전되기 않은 상태이므로 FDI 유입실적도 위축될 전망이다.

한편, 폴란드 정부는 2010년 정부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지출을 억제할 계획이지만, 법인세 등 세수가 위축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22) 폴란드 실업률은 EU 가입 이전에는 20%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급속히 하락하여 2008년에는 7% 수준을 기록함.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8.9%, 2010년에는 10.3%로 전망됨.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폴란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유로존 도입을 위해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해야 되는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2009년에는 -6.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이 2010년 55%에 근접할 정도로 우려되며, 따라서 유로화 도입을 위한 재정수지/GDP -3% 이내, 공적채무/GDP 60% 미만 등의 필요조건을 폴란드가 단기간 내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²³⁾ 그 결과 폴란드는 2012년 유로화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유로화 도입조건 충족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유로존 가입시점이 예정보다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유로존 도입조건 중 ERM2(EU 환율조정메커니즘) 채택에 대해 폴란드 내 정치적인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점도 폴란드의 최대 경제현안인 유로존 가입에 장애가 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

23) 폴란드 정부는 유로화 도입 이전 ERM2를 운용해야 하므로 환율 및 물가 안정, 재정수지 및 공적채무 관리가 요구됨.